

눈길 끄는 90년대의 신생출판사들

기존 출판계 '빈 자리' 채우며 등장...문인들 대거참여도 특징

우리 출판계를 두고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1류 아니면 3류밖에 없다"는 극단론을 편다. 독특한 자기 칼라를 가진 소수의 전문출판사와 이름만 내건 다수의 두루뭉수리 출판사로 이분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이 말은 독자들의 다양한 책읽기의 욕구를 지금과 같이 편중된 출판시장 구조속에서는 충족시키지 어렵다는 말과도 통한다. 1, 3류라는 질의 문제 외에도 대규모 출판사와 군소 출판사로 양분되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독과점 현상, 경영의 영세함, 기획력의 부재 등의 문제가 출판계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음을 볼 때 출판계 내외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획의 참신성·목록의 다양성 돋보여

89년말 4,763개이던 전국의 출판사 수가 등록자유화 조치에 힘입어 90년 11월말 현재 5,679개로 급증한 것을 보면 관심있는 사람들은 저같이 엄청난 숫적 증가가 출판계에 얼마만큼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에 우려와 기대를 함께 가졌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이들 신생사들 가운데서 출판계의 허약부분들을 일정 정도 극복, 자신들만의 독특한 칼라를 열어나가 내보이면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출판사들은 과연 얼마나 꼽을 수 있나. 특히 신생사들에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90년도 이후에 등장한 세대라는 점에서 90년대 출판의 경향과 가능성을 동시에 점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대를 갖고 들여다보아서가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화제의 신간으로 주목

받거나 서점가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책 가운데는 신생출판사들에 의한 수확물들이 의외로 많다. 「아침꽃 저녁에 줍다」(노신/창) 「사무라이1, 2」(줄리아 크리스테바/솔)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1」(최인호 외 역/박종철출판사) 「거짓말쟁이 야곱」(유레크 베크/솔) 「내 이름은 티안」(돈오김/전원) (이상 번역물) 「우리 선생님 시집1~5」(정대구 외/전원) 「열한권의 창작노트」(문순태 외/창) 「한국근현대사 사진」(한국사사전편찬회/가람기획) 「서른, 하나 둘 셋」(이지희 외/전원) (이상 국내저작물) 등이 대충 눈에 띄는 책목들이다.

그런데, 생긴 지 1년 남짓한 신생출판사들이 내놓은 이들 책 가운데는 정확하고 유려한 번역으로 출발부터 철저한 책임감과 프로정신을 내보이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기획이 참신하여 돋보이거나, 상업성보다 소수독자의 지적갈증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신선한 의지가 엿보이는 책들도 적지 않아 특히 눈길을 끈다. 이와함께 최근들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신생출판사들은 책으로써 외에도 시인 소설가 평론가 등의 문인들이 대거 출판업에 참여하거나, 신생임에도 편집위원제를 운영하는가 하면 대학동문들이 의기투합하여 출판사를 차리는 등 풍성한 뒷배기도 놓고 있다.

"기존출판사가 놓친 부분 개발한다"

최근 눈에 띄는 읽을거리를 펴낸 신생출판사들을 일별해보면, 문학 대중문화 역사 사회과학 철학 광고 등의 각 분야에 고루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출판에 임하는

한 사회의 출판문화는 다양한

색깔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일정한 수준만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책

저런 책이 다같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 출판계는 1, 3류의 극단적인

구분이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자기 색깔을 가지고 구석구석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신생출판사들의

등장은 고무적이다.

자세의 새로움, 앞으로 내용을 목록의 다양함 등은 무척 흥미롭다.

지금 진행중으로 곧 내놓을 목록이 가장 다채롭기는 문학평론가 임우기씨가 하고 있는 도서출판 '솔'. 유레크 베크, 줄리아 크레스테바, G. G. 마르케스 등 외국 주요작가들의 번역소설로 일반에 알려져 있는 이 출판사는 앞으로도 번역소설을 계속해 소개하는 한편 '입장(Position)총서' '대중문화이론총서' '한국의 작가총서' '페미니즘총서' 등 주요 기획들을 준비중이다. 알튀세르 하버마스 루카치 그람시 등 현대의 주요 사상가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직접 소개한 글들로 모아질 '입장총서'는 7월중 3권이 선보인다. "기존 출판사들이 고유의 성격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적극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단행본 한편한편마다에 참신한 기획력과 책

만드는 사람들의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출판사가 '전원'(대표 오영호). 정대구 이성선 나태주 송수권 김강태 5인의 교사시인들의 신작시 모음인 「우리 선생님 시집」 시리즈로 최근 호평을 받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읽힐 쉽고 좋은 시가 드문 시단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이 시리즈 외에도 박정자 윤소정 윤석화 손숙 4인의 산문을 모은 「무엇이 이토록 나를」과 전문직 여성 33인의 미니자서전 「서른, 하나 둘 셋」 등에서 이미 기획력과 추진력을 입증받은 바 있다. "독자들이 무엇을 읽고 싶어하는지를 찾아내 기획하고, 기획의도에 맞지 않는 원고는 몇번이고 다시 써오게 하는 철저함으로 '독자의 사랑을 받는 좋은 책'을 만들고자 한다"는 게 전옥란 편집장의 말.

68년 사상계에 실려 필화사건에 연루된 고태석현용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에서 출판사의 이름을 따왔다는 '생각하는백성'은 지난 5월 도시와 일상을 테마로 하는 젊은 시인들의 시집 3권을 첫책으로 내놓고 눈길을 끌었다. 90년대의 문학기류가 지난 년대의 민중·민족지향성을 벗어나 탈이데올로기, 일상성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진단, 이같은 주제의 시집시리즈를 기획했는데, 올해중으로 3권을 더 내놓는다.

이 출판사 대표인 소설가 유익서씨는 "지식의 수용을 넘어 지적 창조를 선도해나갈 매체로서의 책"에 초점을 두고 출판사측에서 먼저 기획, 필자를 찾아나갈 방침이어서 다음 책이 기대를 모은다. '생각하는 백성'과 마찬가지로 시집출판에 역점을 두면서 소설 예세이로 범주를 넓히고 있는 곳이 소설가 송기원씨가 운

왜

귀사의 카다로그만
눈에 띄지않습니까?

카다로그는 말과 발이 없는 수천명의 세일즈맨과 같은 강력한 판매 도구입니다. 간결과 선명한 카다로그는 소비자의 구매욕을 충족시켜 귀사의 판매신장과 시장확대를 시켜줄 것입니다.

“
서광은 나무만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현장감넘치는 신나는 광고를 관찮은 발상으로
재미있게 전개하여
무관심한 소비자를 관심고조 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광이 하는일

- 단행본·참고서제작
- 신문·잡지·포스터 기획제작
- DM·리플렛·카다로그 기획제작
- CIP 제작
- 전산사식·수동사식
- 그래픽 전문디자인

sk 서광 기획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17-2
기획실 : 671-6 2 8 5番
(代) : 679-9 1 5 2番
FAX : 675-8 9 3 2番

영하는 '들꽃세상'이 있다.

앞서 언급된 출판사들이 문학과 관련서의 출간을 중심에 두고 주변 관심사로 자유롭게 폭을 넓혀가고 있다면, 89년 겨울호로 창간한 국내 유일의 소설전문지인 '현대소설'은 울초서정인의 「봄꽃 가을열매」를 시작으로 국내외 소설 및 소설이론서 출간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현대소설'에 게재하던 작품들마다 까다로운 자체기준으로 선정했듯 단행본 출판에도 소설의 본령을 지키는 작품, 번역서는 국내 초역을 원칙으로 하나 오역이 많았던 작품이나 이론서도 대상으로 한다. 소설가인 주간 김원우씨를 필두로 김석희(번역가) 이원섭(소설가) 정호웅(문학평론가) 장경렬(서울대교수) 씨가 주1회 편집회의를 갖고 작품을 고른다.

대학동문들이 모여 만든 곳도

한편, 전환기를 맞고 있는 사회과학출판계에 새롭게 짐을 풀거나 어려운 사전 작업에 참가한 곳도 있다. 먼저, 지난해 11월 「한국근현대사사전」을 낸 가람기획(대표 이광식)은 올해 말쯤 「한국고중세사사전」을 내용을 계획으로 지금 한창 집필중이다. 철학 경제 문학 쪽으로는 '읽는' 사전의 보급이 그런대로 되어 있는 반면 역사쪽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세계사쪽으로도 다양하게 영역을 넓혀 읽는 역사사전을 펴낼 계획이어서 이채를 띤다.

고박종철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7월 설립된 사회과학전문출판사인 '박종철출판사'(대표 최인호)는 9개월여의 작업 끝에 최근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1」을 펴

내 화제가 되고 있다. 체계적이고 올바른 번역으로 마르크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오역을 최대한 줄인 점이 특징. 올 10월경 2, 5권이, 내년까지 모두 6권이 완간된다.

이보다 좀더 대중적으로 사회과학 철학 문예이론들을 일반에 보급할 목적으로 문을 연 곳이 도서출판 '창'(대표 서봉섭)이다. 최근 작가 자신들의 입을 통해 작품이 이루어진 과정과 자신의 문학관을 직접 듣는 「열한권의 창작노트」로 화제를 모았다. 「아침꽃 저녁에 줍다」에 이어 노신의 작품을 또하나 번역중이다. 교과서적인 딱딱한 이론이 아닌 대중적인 학술서를 광범위하게 펴낼 예정이다.

최근 눈길을 끌고 있는 신생출판사 가운데는 앞서 언급한 들꽃세상(송기원) 솔(임우기) 생각하는백성(유익서) 현대소설사(김원우) 외에도 문인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편집책임을 맡고 있는 출판사가 상당수에 이른다. 미완의 소설가 김주영씨, 작가정신의 소설가 황충상씨, 미학사의 시인 박의상씨, 등지의 시인 황근식씨, 그리고 이보다 조금 앞서 설립한 살림의 소설가 심만수씨 등이 그들로 이들 대부분이 문학관련 서적을 내고 있는데 비해 김주영씨가 하는 미완만이 광고와 미술관계 서적을 집중적으로 내고 있어 이채를 띤다.

또한 이 가운데는 생각하는백성 솔 미완 미학사 살림 등과 같이 문인들이 사장으로 직접 출판사를 설립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들꽃세상 작가정신 등과 같이 문인이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변호사나 사업가 등 자본을 대는 물주는 따로 있는 곳도 있다. 후자의 경우 편집권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기획력이 뒷받침된

다면 충분한 자본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좋은 출판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상업출판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이같이 문인들의 출판사 운영 붐은 그들이 대체로 글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있고 폭넓은 독서를 통한 '책 속의 또다른 책'에 대한 정보가 빨라 기획, 원고청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운영에 있어선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게 그들의 대체적인 고백이다.

애초의 의욕 지속여부가 성패 기름

또 한가지 90년 이후 생겨난 신생출판사들의 재미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대학동문들이 단합하여 출판사를 운영하는 점. 박종철출판사가 박군과 같은 씨름에서 함께 공부하고 활동한 동료 선후배 6명이 모여 설립한 곳이라면 전원출판사는 동국대 동문들이 모여 만들었다. 사장과 편집장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동문후배 6명으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기획이나 제목정하기 등 주요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또 창출판사는 고려대 동문이 참가하고 있는데, 행정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사장과 고대학보사 출신의 후배가 편집장을 맡아 조화를 이룬 경우. 이밖에 최근 출판사 등록을 한 지리산출판사는 전 경희대 직원노조위원장 지냈던 장백기씨를 대표로 경희대 출신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다.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학연을 통한 필자개발에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건 부차적이다"라고 말하는 창출판사의 안철홍 편집장은 의견교환의 자유로움을

동문들이 모인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한 사회의 출판문화는 다양한 색깔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읽어서 해악이 될 조악한 내용의 책은 마땅히 경계해야 하겠지만, 일정한 수준만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책 저런 책이 다같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 출판계는 1, 3류의 극단적인 구분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자기 색깔을 가지고 구석구석 '빈 자리'를 채워 나가는 새로운 출판사들의 등장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들 신생사 가운데는 몇몇 좋은 책을 내놓고는 이 책 저 책 기획의도와는 전혀 판권인 책을 끼워넣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신생출판사가 자기 자본이 넉넉지 않을 때, 한두권 정도 의욕적으로 펴냈다가 반응이 미약하면 대개 돈벌이가 될 만한 '거리'에 눈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처음 출판사를 시작했을 때의 의도가 얼마까지 남아 기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기획이 왔다갔다 하게 되면 대체로 출판은 실패로 가게 된다. 어렵더라도 처음의 선명성을 잃지 않고 독자층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출판인 장석주(청하대표)씨는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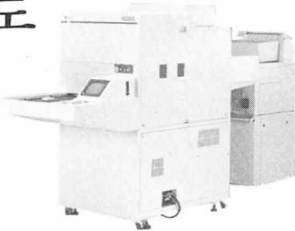
"결코 허술하게 만들진 않겠다" "기존 출판사가 못하는 영역을 개발하겠다" "독자들의 변화된 의식을 담아내겠다" 등 의욕적인 출발을 보이며 시작한 신생출판사들이 어떻게 자기 고유의 색깔을 가진 전문출판사로 자리잡게 될지 기대된다.

—정혜옥 기자

□ 단색 SCANART 30 II

이제는 **카메라가 아닌 스캐너로**

- 저렴한 가격 실현
- 선명한 망점 재현력
- 신속한 처리 능력



촬영하는 시대입니다.

SCANART 30 II의 용도

- ◎ 2°이내의 각종 간행물의 사진 분해 및 제판 단행본 / 월간지 / 전집물/사보
- ◎ 더블톤(Double Tone)으로 처리되는 특수인쇄물 인물사진/미술사진/제품 카다록

신영프로세스

서울시 중구 초동 106-27(오양B/D4F)

TEL. 268-3808~9